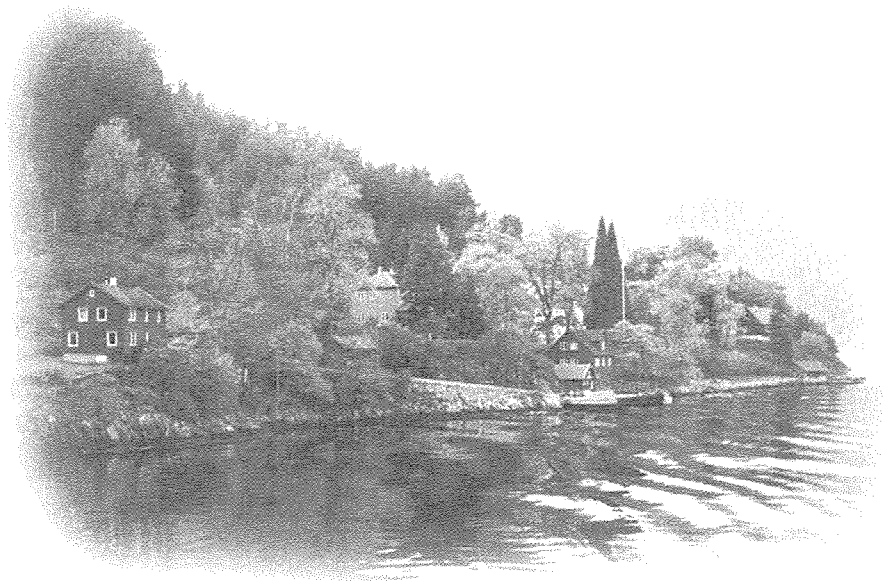


노르웨이 치과의사의 한국전쟁 참전기

코리아크리젠 (KOREAKRIGEN ; 한국전쟁)



노르웨이의 송네포르 풍경

9월 5일부터 9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제85차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총회 기간 중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외국 치과의사를 위한 모임을 특별히 마련했다.

이 글은 군진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특별모임을 위해 노르웨이 한국전쟁 참전자 협회와 연락하던 중 노르웨이 한국전쟁 재향군인회 회장인 Nils S Egelien의 도움을 얻어 입수한 전쟁수기이다.

한국전쟁에 참여한 노르웨이 치과의사는 구빈 시네스(Gudvin Sydnes), 존 보르그(Jon Borg), 변 오스테인 바켄(Bjørn Jostein Bakken), 알마르 스트랄베르그(Hjalmar Straalberg), 쉘 베크르(Kjell Bjerkoë)의 5명이며 아쉽게도 변 오스테인 바켄을 제외한 4명은 이 세상에 없으며 변 오스테인 바켄은 현재 노르웨이 멜하우스(Melhus)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Torbjørn Guldseth라는 노르웨이인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치과의사의 눈을 통해 한국전쟁 당시 노매시(NORMASH[노르웨이 육군 이동 외과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겪은 치과진료 상황과 전황 등을 담담하게 글로써 그려내고 있다. (편집자)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휴전선을 넘어 남한을 공격함으로써 전쟁이 시작되었다. 미국은 대규모 지원군을 파견하였고 16개국의 유엔 동맹국들도 전투병사를 투입하였다. 노르웨이에서는 남한을 도와주자는 안전보장회의 안건을 지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 군사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엔측에서는 우리가 군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군의관 단체를 파견하여 줄 것을 희망하였다. 정부는 미국의 전시 임시 병원을 사는 것을 제안하였고 1951년 국회는 필요한 자비에 관하여 승인하였다. 5월 첫 지원군이 파견되었다.

노르웨이 육군 이동 외과병원인 노매시(NORMASH) 열어

1951년 7월 19일 노르웨이 육군 이동 외과병원, 노매시(NORMASH[Norwegian Mobile Army Surgery Hospital])를 열었다. 그 병원은 50명의 공무원과 (그 중 16명은 간호 보조원) 동시에 56명의 사병들로 출발하였다. 이 외에도 공기업 근로자, 한국 호위병대를 비롯하여 전체 직원 수는 190명 가량 되었다.

병원은 모래바닥으로 직렬식 텐트로 이루어졌다. 텐트에는 숙소, 식당, 부엌과 관리국이 있었다. 수송과 운반을 위한 20대의 짐차가 갖추어져 있었다. 기본적인 비품으로는 60개 가량의 이동침대가 있었는데 필요에 의해 두 배 가량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었다. 전기등은 조명을 관리하는 석유공급 단체의 도움으로 운영되었다. 따뜻한 공기는 소위 히터라는 넓은 관을 통하여 모든 막사에 공급되었다. 석유로 작동되는 소독기와 가열기는 기구와 장비의 소독에 이용되었다.

매시(MASH)는 부상병들이 완전한 외과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최초의 병원

덴마크는 '유틀란드리아(Jutlandia)' 라고 하는 병원선에 동참하였고 스웨덴은 노르웨이와 같은 위생단을 파견했다. 매시(MASH)는 부상병들이 완전한 외과적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최초의 병원이었다. 병원은 최전방이 변경될 때마다 이동하기 위하여 아주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 병원은 부상에서 외과적인 치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전방에 위치해 있어야만 했었는데 그 생각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와 한국 전쟁에서 완전한 시설을 갖춘 병원을 전투지역의 제일 앞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데에도 바로 이용되었다.

야전병원은 미 병원과 거의 같은 시간내에 제8육군 부대 지휘와 관할하에 들어갔다. 노르웨이 육군 이

동 외과병원은 그 당시 전방에서 15km 뒤쪽의 수도 서울 북쪽 2마일 근처에 설립되었다. 두 번 이동을 하였고 전쟁의 말기에는 실제로 38도선에 위치해 있었다.

한국에서의 전방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고 대신에 꾸준히 양쪽에서 순찰 활동이 이루어졌던 몇 킬로미터의 넓은 전투 지역이었다. 일부에서는 정상과 전략상의 의미가 있는 산등성이를 차지하려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치과의사는 마치 부족한 물품과 같이

치과의사 사무실에서 매시(MASH)를 위한 초기 계획을 듣고 보았다. 노르웨이 병원에서는 설비가 갖추어진 치과 진료실이 한 막사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첫 지원부대에는 치과의사를 동반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이 없었다. 노르웨이 쪽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 같다. 육군 지시는 미국에 부족 인원을 보충하라고 내려졌고 그는 8개월 동안 그곳에서 일했다. 그러나 미국인들이 2차 지원 부대에 치과 의사 교육을 받은 외과적 보조 의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돌려 보내어 졌다.

에이질 아스(Eigil Aas). 아스는 신속한 치과 의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돌보도록 요청 받았고 더불어 병원 경호 업무 까지 수행 하였다.

“한 달 동안 ‘두 배 속도의 운영’ 후에 나는 이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발견 했다.”고 아스는 털어 놓았다. “치과 진료실을 운영하는 일은 비록 내가 잠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만을 살렸음

에도 불구하고 하루 온 종일이 소요되는 일이었다. 치과의사들은 부족한 물품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3천명이었던 오스트레일리아 지원부대는 치과

의사가 없었다. 영국인은 1만4천명의 병력에 3명의 치과

의사를 동반하고 있었다. 뉴질랜드의 지원부대에

는 한 명이 있었지만 그는 완전 최전방에서

만 일을 하고 있어서 후방을 돌볼 수

가 없었다. 미국 지휘부는 18명의

치과의사로 각 구역마다 배치시

키고 있었지만 부족분을 메꾸

기에는 너무 극소수였다. 나

는 세심한 진료를 필요로 하

는 병사들의 홍수 속에서 하

루 하루를 보냈다. 게다가

입원시켜야 할 정도의 이빨,

입, 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들도 찾아왔다. 나는 꾸준히

중기, 치육염, 구내염으로 누워

있는 환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턱 전문과정을 거쳤던 나였기에

턱 상처도 내 책임하에 있었다”고

아스가 설명해 주었다.



전투지의 제일 전방에는 임시 구조장소인 전선 응급 구호소가 위치

오슬로(Oslo)에 있는 치과대학의 그곳의 초기 기록에 따르면 에이질 아스(Eigil Aas)는 선생님이로 출발하여 후에는 유명한 교수가 되었다. 그는 전쟁중의 위생 봉사 활동에 관하여 이야기를 했었다. 전투지의 제일 전방에 한 명의 의사와 소수의 보조원으로 된 임시 구조장소인 전선 응급 구호소가 위치해 있었다.

그들은 일자리로는 유쾌하지 못했을 장소인 모래땅 위에 설치한 임시 천막을 가지고 있었다. 이곳까지는 부상자들이 임시 들것으로 운반되었고 필요한 첫 응급조치가 이루어졌다. 그 후에 하나나 두 개의 텐트가 있는 연대 집합소까지 운반되었는데 그곳에도 물론 의사를 찾을 수 있었다. 여기서는 붕대를 관리하였고 환자는 아픔을 덜어주는 모르핀을 공급받았다. 쇼크 상태에 있는 환자는 정맥 주사액을 받았다. 구조체계에서의 다음 단계는 작은 임시병원이 있던 지구별 치료 후송소였다.

전쟁중에는 고무와 아크릴 의치라도 필요성이 커

이들 치료 후송소 중의 몇 곳에는 임시 장비와 수동식 기계, 석유 전등이 있어서 단순 치료와 특별 치료만을 요하는 환자들을 다루는 치과 의사들이 있었다.

미국 지구는 전투지로부터 5km 지점에 위치하여 있었다. 진료소는 3개의 임시 천막과 산골짜기에 숨겨 놓은 버스 한 대로 이루어 졌다. 그곳에는 한명의 치과 의사와 3명의 기술자가 일을 하고 있었다. 한곳의 텐트에서는 인쇄가 이루어졌고 버스에는 기술적인 치과 연구실이 있었는데 그 곳에 고무와 현지 조달책으로 아크릴 의치를 제작하였다. 필요성은 아주 컸고 대기자 명단은 너무나도 길었다.

병사들은 종종 자신의 의치를 광산 폭발 중이나 심한 전투에서 상처입음으로써 분실하곤 하였다. 환자들은 새로운 의치가 완성 되는 동안 천막에서 5-6일 가량을 기다려야 했다. 그럼으로써 치료할 때마다 오고 가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지구별로 병사들을 자신들의 구역에 유지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리하여 진료소는 최전방에 위치했다. 치료 후송소에서 심각한 사고는 헬리콥터로 매시(MASH)까지 운반되었다. 성형수술적 복원 치료가 필요했던 환자들은 일본이나 미국의 병원기지로 후송되었다.

지적, 문화적 잠재력을 갖춘 소년과 함께 일해

에이질 아스(Eigil Aas)는 그가 치과 진료소에 17세의 강이라는 한국 소년을 보조원으로 두고 있었던 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다. “그는 아주 빨리 일하는 것을 배웠다. 게다가 진료소를 완전 정상 상태로 유지시키는 기구를 살균, 소독시키는 일을 너무도 정확하게 해냈다. 그는 시멘트를 혼합하였고 혼합물을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저었다. 그는 이해할 만한 영어를 배웠고 유용한 통역자였다. 그 소년은 우리가 접촉한 많은 한국인들 가운데에 한 본보기였다. 그들은 우리가 지적, 문화적 잠재력을 가진 민족과 일하였음을 입증하여 준다.”

한국인 환자는 조용하고 품위 있으며 감사할 줄 알아

아주 오랫동안 전투가 진행되었고 전 부원들은 군 환자들을 진료해야 했었다. 일반인은 군인이 가버리고 없는

경우에나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1952년 봄이 지나갈 무렵 전투는 줄어들었고 그리하여 노르웨이 병원은 일반 한국인들을 진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직원들로서는 전쟁상처로 인한 일반인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더욱 만족스러웠다. 아스의 일반 치과 환자들에 관한 기록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인상적인 과거의 청사진이 됐다.

“그들 환자들과 일하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일이었다. 한국인은 대체로 아름답고 고른 치열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충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충치 사진은 모국에서의 것과는 달랐다. 하나의 완전한 치열에서 윗니와 아랫니가 맞물려서 나온, 단순한 아래부분의 충치를 찾을 수 있었다. 완전 충치는 매우 드물었다. 젊은 환자들에게 있어서 입안의 상처는 셀 수 없는 정도였다. 쌀과 더불어 말린 생선도 중요한 음식이다. 이 최소한의 검소한 식단은 일부의 양배추와 약간의 감자 그리고 다른 뿌리들이었다. 내가 보아온 대부분의 한국 환자들은 가장자리의 주기적 염증과 함께 엄청난 치석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충치보다도 가장자리 염증이 있는 여러개의 이빨을 더 많이 뽑아 내었다. 나는 한국인 환자 만큼 조용하고 품위있으며 감사할 줄 아는 환자들을 진료 해 본 적이 없었다.”

노르웨이로부터 5명이 봉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

1952년 8월 첫 노르웨이 의사인 구빈 시네스(Gudvin Sydnes)가 베르겐(Bergen)으로부터 왔다. 그는 우두머리 자격이었다. 그 다음에는 존 보르그(Jon Borg)가 왔다. 그는 집으로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기술하였다.

“나는 턱 손상 환자를 다루었다. 그리하여 나는 울레볼 12병동에 있을 때 아주 유용한 시간을 가졌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만약 그가 좀 더 많은 Xylocain과 Wiplatråd(특히 0.5 정도의 습기를 함량한)를 구할 수 있었다면 나는 더욱 더 편하게 진료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후임자는 멜 하우스에서 온 변 오스테인 바켄(Bjørn Jostein Bakken)이었다. 그 다음에는 알마르 스트랄베르그(Hjalmar Straalberg)가 왔고 마지막 지원부대에서는 쉐 버르크(Kjell Bjerko)가 봉사활동을 하였다.



모험심으로 충만돼 허가도 없이 한국으로 봉사 떠나

변 요스테인 바켄(Bjørn Jostein Bakken)은 그가 한국에서 봉사활동을 할 지에 관하여 사전 질문을 전화로 받았을 때 북 노르웨이의 주둔군 치과 의사였다.

“하스타드(Harstad)에서의 지국 우두머리는 그가 간신히 치과 의사를 구했기 때문에 나에게 거절할 기회를 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허가도 없이 떠났다”고 바켄은 말한다.

27살의 젊은이에게 있어서 모험심은 징계에 대한 무서움보다 훨씬 컸다. 여행은 헬기로 카라치(Karachi)와 델리(Dehli), 방콕(Bangkok), 홍콩(Hong Kong)을 거쳐 대략 3일간의 시간이 걸렸다.

“우리가 한국에 이륙하기 전에 많은 질문이 쏟아졌고 우리는 아주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서울에는 저격병이 있었고 그리하여 캠프 밖에서는 탄약이 장전된 무기를 가지고 다녀야만 했었다. 턱진료에서의 불충분한 경력을 가진 나로서는 많은 전투 부상들로 인하여 아주 힘든 시간이 되었다. 나는 교과서인 <이

빨, 입 그리고 턱의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어서 이론을 확립하기 위하여 그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읽었다. 한 미국인 구강 전문의로부터 나는 턱 파손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웠다. 나는 다음 진료를 위하여 환자들을 스웨덴 막사로 보냈다.”

힘든 병영 생활 중에도 크리스마스에는 노래 불러

“한국에서의 밤은 아주 추웠고 그래서 우리는 파라핀 난로에 불을 지폈다. 그것들은 약간 위험했고 2개 정도의 텐트가 불타 버렸다. 우리는 미국 식량을 가지고 있었고 음식은 만족스러웠다. 그렇지 않으면 병사 생활은 너무 힘들었고 집에 대한 향수가 짙어지면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노르웨이인들 사이의 동료 의식은 아주 좋았고 그 곳에서 나는 평생동안의 친구들을 얻었다. 게다가 나는 노래 부르는 것을 아주 좋아해서 크리스마스에는 합창단에서 노르웨이 크리스마스 노래를 불렀다.”며 바켄이 이야기 한다.

전쟁의 폐단으로 경험한 비극적인 모습을 잊을 수 없어

“전쟁이 가져다 준 좋지 않은 결과를 보게 되었던 경우가 내 인생에서 여러번 있었다. 독일 대 부대의 첫 지원부대에서 나는 군 봉사를 하였다. 나는 폐허가 되어 있고 피난민으로 가득찬 거대한 도시 켈른(Köln)과 함부르크(Hamburg)를 보았다. 일본에서는 기차를 타고 히로시마(Hiroshima)까지 갔었다. 도시에는 아직도 원자폭탄의 투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서울은 여러번 전쟁의 중심지였다. 주민들은 고통을 당했고 많은 이들이 광산으로 인해 부상당했다. 항상 고통 받아야 하는 것은 일반 주민이었다. 한국에서 가장 최악의 문제는 부모 잃은 아이들이었다. 동양의 전통적인 의식구조를 통해 보았을 때 그 아이들을 돌볼 이는 아무도 없었다. 유엔은 그들을 도와 주기 위하여 캠프로 모으는 시도를 하였다. 의료계 인사들과 함께 나도 나병 환자촌을 방문하였다. 나병 환자들은 그 자신이 나병환자였던 의사들과 함께 자신들만의 마을에 격리되었다. 나는 코와 손가락 등을 잃었던 그들의 모습을 잊어 버릴 수가 없다.”고 바켄은 털어 놓는다.

바켄은 촬영 도구를 가지고 있어서 그 당시 한국에서부터의 많은 양의 슬라이드와 16mm 가는 필름을 소유하고 있다. 그는 고향인 트랜드라그(Trøndelag) 주변의 국민 교육기관을 순회하며 자신의 경험담에 관하여 들려 주었다. 오늘날 변 요스테인 바켄(Bjørn Jostein Bakken)은 멜하우스(Melhus)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휴전 협정 이후 귀향

1953년 7월 28일 휴전 협정이 이루어졌고 지도부는 즉각 병원을 닫는 문제를 거론하였다. 상황이 더욱 호전되어 가고 나머지 유엔군이 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병원들도 자신들의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첫 일년 후부터 귀환 움직임이 시작되었는데 노르웨이 육군 이동 병원은 1954년 12월 10일 단독으로 문을 닫았다. 사람들은 고국인 노르웨이로 돌아갔다. 모두 6백23명의 노르웨이 남녀는 7개의 지원 부대에서 봉사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9만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였다. 치과의사 봉사에 대기자 명단이 없는데 아마도 8만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한 것 같다. (* 본문의 영문자는 노르웨이어이다.)